

# 호우 피해 최소화 대응 · 응급복구 총력 ‘전주시 글로벌위원회’ 출범

전문가 13명 구성... 전주형 개발협력사업 등 추진 방향 논의

전주시, 배수펌프장 34대 시설 운영 · 우수저류시설 3개소가동 등 사전 대비 철저 · 초기대응 강화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전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 그리고 구제대책을 연구계획을 내놨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은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3일부터 전날까지 358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과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에는 지난 14일 하루 만에 24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졌다. 하루 만에 내린 비는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보다 많았고, 3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2005년 덕진동 구법원 일대가 침수된 일강우량(240mm)과 맞먹었다.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인명피해 및 이재민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재산 피해는 피해 갈 수 없었다. 현재까지 농경지 및 도로 침수, 가로수 전복으로 인한 정전 등 비 피해는 총 76건으로 파악되었다.

유형별로는 공공시설 도로 및 하천 16건, 농업 및 산림공인 13건, 기타 수목 전도 등 24건, 사유시설 주택침수



연일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차량통제를 하고 있다.

및 파손 23건, 농경지(벼) 침수 200ha 정도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전주천 사전 다리 인공 호안 유실 및 시설물 파손과 견회로 우아한시티아파트 맞은편 토사 유실, 교통 일광암 뒤 절토사면 붕괴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다.

시는 주말 사이만 공무원 208명과 굴삭기, 덤프 등 가용 가능한 장비 투입해 주민 생활 시설 및 주요 공공 시설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실시했다.

비가 잠시 소강상태일 것으로 예보

된 19일부터는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 봉사자, 군병력, 자율방재단, 전주시 안전협의체 등과 협력해 하천 부유물 제거 및 농작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많은 비가 예상되자 선제적인 대응도 앞장섰다. 당장 시는 지난 13일 오후 4시 호우 예비특보 발표와 함께 배수펌프장과 하천 배수문, 도로 관리 등의 근무자들을 비상 근무에 투입시켰다. 지난 14일 자정을 기해 호우주의보 발표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가동해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

을 추진하고 13개 분야 재난관리부서와 양구청 및 35개 동에서 비상 근무를 시행하는 등 초기대응을 강화했다.

배수펌프장 34대 시설 정비와 최근 준공된 3개소의 우수저류시설 가동, CCTV 등 예·경보 시스템 300여 개소 추가 증설해 운영, 도로 및 하수도 및 물받이 및 하수관로, 하천 준설 등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다.

우범기 시장은 “장마가 일시적인 소강상태지만 다음 주에도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신속한 피해 복구와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우려 지역, 재해 취약시설물 사전 예방에 철저히 해달라”며 “특히 안전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대한 피해 상황 및 점검을 실시해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필요하면 긴급지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중으로 피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를 신고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국고지원 이점이라도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이끌며 전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 그룹인 ‘전주시 글로벌위원회’가 출범했다.

전주시는 1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 글로벌위원회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글로벌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전주시 글로벌위원회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글로벌도시 정책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맡는 기구로,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을 포함해 마이스(MICE), ODA(개발협력사업), 무역, 통상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범기 전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2023 전주시 국제교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전주형 개발협력사업(ODA)’ 발발 및 추진 방향과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범기 시장은 “앞으로 문화관광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해 전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

이고,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도시, 미래광역도시로의 전환을 꿈꾸길 기대한다”면서 “전주가 글로벌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 원조를 의미하며, 정부는 내년 ODA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인 6조 8421억 원을 편성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정부의 ODA 활성화 기조와 발맞춰 ‘전주형 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전 세계에 대한민국 속의 전주가 아닌 ‘전주’ 자체의 브랜드를 각인시킨다는 구상이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 의무화 ‘눈앞’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각종 심의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어서 전주시역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날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 제도가 미뤄져 운영돼왔지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 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건축·경관·교통·영향·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이날 중 공포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되는 만큼,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주시역의 경우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시는 통합심의를 시행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욱기 기자

## ‘안전하고 친절하게’ 전주시내버스 노·사·정 공동협력

서비스 향상 위해 협력·소통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5개 운수회사 대표, 버스운수 노동자들이 전주에 처음 시내버스가 오간 지난 1968년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18일 평화동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선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태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상수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 버스지부장, 임형빈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위원장, 5개 운수회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협력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내버스가 전주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통 수단인 만큼, 과거 잦은 파업과 노사 갈등 등의 역사를 뒤로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내버스로 거듭나



18일 평화동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전주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협력식이 열렸다.

도록 노·사·정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만근일수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한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노·사는 서로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행정은 노사의 애로사항을 귀담아들어 불편을

줄여 해소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 같은 노사정 상호이해와 협력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리기 위해 △운전자는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시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한다 △운전자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시내버스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등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4가지 실천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 이날 행사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노·사·정 협력내용 소개와 친절한 시내버스 서비스 및 노·사·정 협력을 다짐하는 피켓 결의, 수소총선소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내버스는 매일같이 등교하는 어린 학생들과 출·퇴근하는 직장인, 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집에서 나서는 어르신 등 모든 시민의 발로,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면서 “노·사·정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학교밖 청소년 13명, 제과·제빵과정 프로그램 수료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아트갤러리제과제빵학원(대표 김중현)과 협력해 재료비 일부를 지원받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과·제빵과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2년 전주시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진로와 청소년 활동 관점에서 흥미와 적성 탐색 부족(33.2%) △다양한 활동을 통한 경험 부족(20%) △문화·예술 활동 필요성(매우 필요, 34.5%) 등을 응답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꿈빛 파티시에: 카페 디저트’ 프로그램은 총 10회, 38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제과·제빵 과정 교육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자립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성취를 이룬 청소년 13명이 수료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